

■ 특집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sup>1)</sup>

문 경 희

I. 머리말

이 연구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서 피폭(被爆)을 당한 합천 출신 조선인 귀환자의 국경 이동과 양국 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의 주체였던 부모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 현해탄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 온 자녀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피폭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폭을 당한 1세대이다. 하지만 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주 1세대인 부모님을 따라 도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한 1.5, 2세대이다.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자녀세대의 국경이동과 양국에서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도일과 피폭, 귀국 등의 일련의 개인사적 사건을 10대 전후에 경험한 1.5, 2세대의 연령은 현재 적게는 70대 후반에서 많게는 90대 초반이다. 해마다 생존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그들의 기억력 또한 하루가 다르게 감퇴하고

---

1) 이 논문은 2017~2018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의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사업' 연구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술면담에 응해주신 23명의 구술증언자들과 증언집 발간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이치바 준코 선생님과 이지영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논평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있다.<sup>2)</sup> 하지만 이주의 맥락에서 그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폭피해자 1세이자 이주 1.5, 2세 생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주자로서의 이동과 ‘낮선 곳’에서의 정착과 적응 경험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sup>3)</sup>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 70 여 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진행된 원폭 피해자에 대한 대다수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원 연구소나 시민단체에 의해 수행된 실태조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sup>4)</sup> 이들 실태조사는 주로 설문조사나 피폭 당시에 초점을 맞춘 증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sup>5)</sup> 한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에 초점이 맞춰졌다.<sup>6)</sup>

- 2) 2017년 2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2,407명이고, 그들의 평균연령은 78.5세이다. 합천지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606명인데, 그 중에서 98명이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다(2018년 10월 17일에 합천군청을 통해 확인함).
- 3) 자녀세대의 경우 그들이 조선인 부모 슬하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고국도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귀환자’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오은정(2018)의 경우 이주 1세대인 부모들의 관점에서 ‘고국’은 ‘돌아갈 곳’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유아기 및 사춘기(대략 7세에서 17세 사이)를 일본에서 보낸 1.5세대와 2세대의 경우에 ‘고국’이 ‘돌아갈 곳’이 아닌 새롭게 맞이해야 할 “낮선 땅”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식민지시기에 일본에 거주했던 이주자 1.5, 2세대들을 ‘고국’에 돌아온 ‘귀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은정,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51호(2018).
- 4) 대표적으로, 1964년 한국방사선의학연구소(현 한국원자력연구원)와 1965년 대한적십자사, 197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꼽을 수 있다. 이후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2011년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가 이뤄졌다.
- 5)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 원폭피해자의 발생부터 원폭2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7).
-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서울: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서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학계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남지역 피해자들의 원폭피해와 그 이후 ‘고통’으로 일관된 그들의 삶을 구술증언으로 소개한 진주(2004)와 정근식·진주 채록(2005)의 연구가 있다.<sup>7)</sup> 한편, 원폭피해자 2세인 김형률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의 역사와 ‘유전성’, 그리고 원폭피해자 2세의 당사자 운동의 어려움에 대해 기술한 전진성(2015)의 연구가 있다.<sup>8)</sup> 한편, 일본의 시민운동가인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3)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왜 경남 합천군 출신인지, 그들의 도일이 생계를 위한 ‘자발적’ 이주이자, 식민지 농정으로 촉발된 빈곤과 기아에 의한 ‘강제’ 이주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점을 당사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규명하였다.<sup>9)</sup> 한편, 이러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구축하는 데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그들을 위한 한국·일본 정부의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데에 방점이 찍힌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학계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시기에 해외 이주와 귀환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주사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방직후 전개된 대규모 인구이동에 주목한 이연식의 경우에는 학계가 대한민국의 ‘민족’과 ‘국가’를 화두로 삼았던 20세기의 ‘일국사적 담론’에 치우쳐서 식민지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을 거치며 “국경 안팎에서 활발히 ‘이동’하고 ‘재이동’했던 사람들을 시야에서 놓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sup>10)</sup> 특히 그나마 일부 진행된 연구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공백으로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같이 수동적인 이유에서 뿐 아니라 유학,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외 이주를 했다가 귀환한 사례에 주목

7) 진주의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과 정근식의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서울: 선인, 2005)이 그것이다.

8) 전진성,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서울: 휴머니스트, 2015).

9) 이치바 준코, 이제수 역,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누구인가』(서울: 역사비평사, 2003).

10)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호 (2016a), 118-119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하며 “역사적 주체”인 그들의 관점에서 이주와 ‘재이주’, 정착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sup>11)</sup>

원폭피해자이면서 이주 1.5, 2세에 관해 연구한 오은정의 2018년 연구는 이주의 맥락에서 다양한 피식민 이주자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위 문제인식을 공유한다.<sup>12)</sup> 한국 원폭피해자의 역사를 귀환이주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피식민이주자 2세들의 귀환서사에서 ‘고국’이 새로운 이주로 생겨날 두려움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낮선 이향’으로 회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국’의 ‘해방 공간’도 패전 일본의 ‘전후 공간’도 그들에게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상호 충돌하고 갈등했던 ‘낮선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오은정은 해방기 귀환이주자 연구에서 ‘패전과 해방의 공간’이 “국민 대 국가” 또는 “단일한 민족주의적 표상들”로 그려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sup>13)</sup> 즉, 그녀는 제국이 붕괴된 패전 공간이나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과업을 지닌 미점령기의 해방 공간 모두 “내셔널리즘적 수사들과는 구분되는”, “민족, 젠더, 계급, (전통적 반상구분을 이르는) 신분, 혈연, 지연, 정치 지향 그리고 세대 등과 얽혀 있는 다층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sup>14)</sup>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은정은 제국 일본의 패전공간과 조선의 탈-식민 해방 공간을 “다층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이행해 간 혼종성의 낮선 공

11)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본 식민자와 피식민지민의 전후실태 비교」, 『한국민족문제연구』, 31호(2016b).

12) 오은정은 2013년 그녀의 박사논문인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 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에서 한국에 돌아온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에서 상정하는, 즉 일본의 국내법인 원폭원호법에 근거해 피폭자건강수첩을 받는 히바쿠샤의 범주로 편입되는 과정을 역사인류학적 시각에서 연구한 바 있다.

13) 오은정은 피식민 이주자 조선인을 ‘난민’, 즉 ‘자기의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는 애초의 환상과 기대를 배반당한 이들로 규정한 김예림의 2010년 연구와는 거리를 둔다. 오은정은 김예림의 연구가 기존의 귀환자 연구들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표상들로 귀환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녀는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녀의 연구를 통해 당시 조선인 귀환자들이 패전 일본, 즉 “후식민의 에스닉 혼종시대”에서 생겨난 불안과 위협, 적대를 ‘고국으로의 귀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망했을 것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은정,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172쪽.

14) 오은정, 같은 논문, 212-213쪽.

간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녀는 “피식민이주자들의 환류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연구 그리고 실제 이러한 귀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상과 삶,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반영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sup>15)</sup>

이연식과 오은정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에 국경을 이동하는 삶을 살았던 피식민이주자들의 이주와 귀환 경험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 지배라는 강압적·착취적 구조 하에서도 역사의 주체로서 활발히 국경 이동을 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피식민이주자의 경험이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 삶의 지형이 민족과 국가 뿐 아니라 세대, 지연, 계층, 젠더를 포함한 다층적 요소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 연구가 왜 해방기에 귀국한 원폭피해자 중에서 경남 합천지역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합천지역 출신 원폭피해자 대다수의 도일 이유가 강제노역 또는 강제징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때 식민농장과 수탈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일본으로 ‘능동적’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반면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세대를 따라 동반 이주한 ‘수동적’ 이주 주체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주가 비록 식민지배로 인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주와 귀환, 그리고 원폭피해자로서의 피해성은 강제노역이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그것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이주와 귀환 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지역과 세대 변수가 국경이동과 정착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천지역 사람들의 히로시마로의 이주 흐름은 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 둘째, 피식민지 출신 이주민 1.5, 2세의 히로시마에서의 일상과 원폭피해 당시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해방직후 그들의 귀환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히로시마에서의 이주 경험이 그들의 ‘고국’과의 첫 대면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

15) 오은정, 같은 논문, 171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7년 시점에 합천에 거주했었던 23명의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증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구술증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2장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그동안 이주와 귀환의 맥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합천 출신 원폭피해 1세이자 이민자 자녀세대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시기에 초점을 맞춘 해외 이주와 귀환 연구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피식민자로서 ‘능동적’으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 중에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대, 전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 II. 연구 대상과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될 구술증언은 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에서 2017년 4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진행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연구팀은 1명의 연구책임자와 2명의 공동연구원,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는데, 필자는 공동연구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였다.<sup>16)</sup> 합천군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23명의 구술자를 섭외하였다. 그들 중 대다수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거주했기 때문에 익숙한 장소인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sup>17)</sup> 21명의 구술자의 원적(原籍)이 합천이었고, 2명은 각 경남진주(7번), 경북고령(14번) 출신이었다. 7번과 14번 구술자는 원적이 합천은 아니지만, 합천으로 이주하여 거주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고, 구술내용

16)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역할에는 경상남도(사업 발주처)-합천군-창원대학교 간에 필요했던 행정업무 뿐 아니라 사업 계획 및 진행, 현지조사 코디네이션과 구술증언 자료집 발간, 결과보고 세미나 주최 등의 업무가 포함되었다. 네 명의 연구원들은 현지 구술면담 진행 및 녹취폴기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자료집 제작과 세미나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

17) 연구팀은 구술면담에 앞서 구술자들에 구술자료 활용 및 공개동의서(1. 구술 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2.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에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경남학센터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포함시켰다. 14번 구술자의 경우 부친의 고향인 경북고령 쌍림면은 합천군과 지리적으로 접해있는 지역이다. 23명 구술자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구술자 목록(면담자료에 근거함)

연번	(성) 고향	출생연도, 출생지, 도일 이유	피폭 당시 나이, 장소, 부상 정도	귀국 시기, 배편
1	(남) 합천	· 1930년 히로시마 · 나카히로마치 출생 · 경제적 이유	· 15세, 철도 하역 · 건물 잔해로 인한 신체 부상, 검은 비, 조모 실종·동생 화상	· 1945.9 · 연락선(백두함)
2	(여) 합천	· 1927년 합천 출생, 3 ·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하여 임신 · 집, 건물 붕괴로 인한 부상, 부친·오빠 화상	· 1945.10 · 야미배(어선)
3	(여) 합천	· 1929년 합천 출생, 4 · 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6세, 무직 · 집, 건물붕괴로 전신 부상, 부친 화상	· 1945.12 · 야미배+ 연락선( 총 3개월 소요)
4	(남) 합천	· 1943년 히로시마 출생 · 강제징용	· 3세 · 집, 건물붕괴로 인한 부상	· 1945.11 · 연락선
5	(남) 합천군	· 1935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0세, 소학교 휴학 · 집, 건물붕괴로 전신 부상, 부친 유리파편으로 인해 한쪽 눈 실명	· 1945.11 · 야미배
6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3세, 소학교 5학년 · 집, 건물이 붕괴되었으나 별 피해 없었음, 부친 화상	· 1945.11 · 야미배
7	(남) 진주	· 1930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5세, 전화선 수리기사 조수 · 요코가와 전철 역, 전신화상	· 1945.12 · 야미배 · 진주
8	(여) 합천군	· 1927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하여 임신 중. 친정 부업에서 설거지 하던 중 건물 붕괴로 경부상. 남동생 두 명 화상 피해	· 1945.10 · 야미배
9	(여) 합천군	· 1933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3세, 소학교 6학년 · 학교 교실, 건물이 붕괴되었으나 별 부상 없었음	· 1945.11 · 연락선( 히로시마-큐슈- 부산-합천)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10	(여) 합천	· 1940년 합천 출생. 생후 3개월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5세, 엄마와 동생하고 피신 가던 길에 강물에 빠졌던 기억 · 부친: 피폭으로 목병(갑상선암으로 추정)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1	(여) 합천	· 1939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7세, 소학교 1학년 · 모친과 집에 있다가 건물붕괴로 한쪽 눈 각막 손상, 언니는 부상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잃음.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2	(여) 합천	· 1928년 교토 출생 후 2세 때 히로시마로 이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 · 집, 건물붕괴로 머리 부상 · 남편: 피부병	· 1945.10 · 연락선(센다끼-부산-합천)
13	(여) 합천군	· 1930년 합천 출생, 6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5세, 정미소 근무 · 건물 붕괴로 유리파편이 온몸에 박힘 · 부친: 방사선에 오염됨	· 1945.9 · 야미배(우지나항-부산-대구-합천)
14	(여) 고령군	· 1928년 고령 출생, 7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7세, 저금국에서 근무 · 사무실 건물 붕괴로 전신 부상	· 1945.11 · 야미배(부산-고령)
15	(여) 합천	· 1937년 합천 출생, 3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1세, 소학교 2학년 · 집, 집에 불이 나서 산으로 대피 · 신체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큼, 두통	·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피폭이후 곧 귀국한 것으로 기억
16	(남) 합천	· 1930년 합천 출생. 출생 직후 도일 · 경제적 이유	· 15세, 모친이 운영하던 합바에서 근무 · 합바 건물이 붕괴 되었으나, 별다른 신체적 부상 없음 · 동생들 전신 부상	· 1945.10 · 야미배-연락선(부산-합천)
17	(여) 합천	· 1928년 합천 출생, 12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7세, 살림 · 집, 건물 붕괴로 피신 · 모친: 머리 부상, 오빠들 화상	· 1945.12 · 연락선(부친과 작은 오빠는 야미배)
18	(여) 합천	· 1934년 합천 출생, 3세 때 도일 · 경제적 이유	· 12세, 소학교 5학년 · 집, 원폭 목격, 건물 붕괴 후 굴로 대피	· 1945.8 · 야미배
19	(여) 합천군	· 1940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5세 · 집, 건물 붕괴로 부상, 굴로 피신 · 부친: 화상	· 1945. 9 또는 10월



20	(여) 고성군	· 1928년 경남 고성 출생, 4세 때 독일 · 경제적 이유	· 18세, 결혼해서 아들 출산, 과자공장 · 출근 전 집에서 폭격 목격, 건물붕괴, 모친은 화상 피해	· 1945.8 · 야미배
21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2세 · 집, 건물 붕괴. 굴로 피난 감 · 부친과 오빠는 바깥에서 일하다가 화상	· 1946.1 · 어떤 배를 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함
22	(여) 합천군	· 1934년 히로시마 출생 · 경제적 이유	· 12세 · 집, 집 마당의 굴로 피신, 집은 붕괴되었으나 큰 신체 부상 없었음	· 1945.10월 추정 · 어떤 배를 탔는지 정확히 기억 못함
23	(여) 합천군	· 1932년 합천 출생, 8세 때 히로시마로 독일 · 경제적 이유	· 14세, 소학교 5학년	· 1945.12 · 연락선

### III.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연쇄이주 배경과 흐름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릴 만큼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한국인이 많은 지역이다.<sup>18)</sup> 약 백여 년의 시간에 걸쳐 합천과 히로시마 사이에는 이주의 흐름과 역흐름(counter-flow)이 진행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 거주를 위한 이주와 귀환이 이뤄졌다면, 이후에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보상과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국경 넘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합천출신 사람들이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했는가? <표 1>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조선인 수를 보여준다. 원폭 투하 당시에 히로시마에는 약 42만 명, 나가사키에는 약 2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중 조선인 피폭자 수는 히로시마에 약 5만 명, 나가사키에 약 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두 도시의 폭사자 수 3만 명과 1만 명을 제외한 조선인 중에 각 1만 5천명과 8천명의 조선인이 귀국

18) 엄밀히 말하자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군수공장과 군사명부가 포진해 있던 ‘군사도시’”였던 히로시마를 합천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폭의 피해 도시이기도 하지만,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가해자’의 도시인 히로시마를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와 전쟁, 원폭피해자들의 도시인 합천을 동일시할 경우 히로시마의 가해자의 기억을 피해자의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광무, 「서평: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한국의 히로시마』」, 『한일민족문제연구』, 7호(2004), 225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 피폭자, 폭사자(爆死者) 수와 조선인의 피해상황

피폭지	전체		조선인 수				
	피폭자 총수	폭사자	피폭자	폭사자	생존자	귀국자	일본체류
히로시마	420,000	159,283	50,000	30,000	20,000	15,000	5,000
나가사키	271,500	73,884	20,000	10,000	10,000	8,000	2,000
합계	691,500	233,167	70,000	40,000	40,000	23,000	7,000

출처: 이치바 준코, 2003, 33쪽 (『핵방사선과 원폭증』(1975), 『한국피폭자 현황』(1985) 참고)

피폭당한 후에 귀국한 사람 약 1만 5천 명 중에 정확히 몇 명이 합천 출신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1978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의 통계에 따라 그 수를 대충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당시 회원 등록자 수는 9,362명이다. 그 중에 합천 출신 등록자 수는 3,570명으로 전체의 38%에 달한다. 이외에도 조사 시점에 합천이 아니라 부산, 경남, 경북 등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합천출신 피폭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자의 약 2/3는 합천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sup>20)</sup> 이외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협회 등록을 꺼려했거나, 협회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던 미등록자 중에 합천 출신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74년 합천지부에서 주민대장 등을 근거로 사망자를 포함하여 피폭자 수를 자체 조사한 결과 그 수는 총 6,014명에 달했다.<sup>21)</sup> 그 중 3,570명이 1978년에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것을 감안할 때 히로시마 거주 조선인 중 상당수가 합천출신이라는 추정이 무리한 것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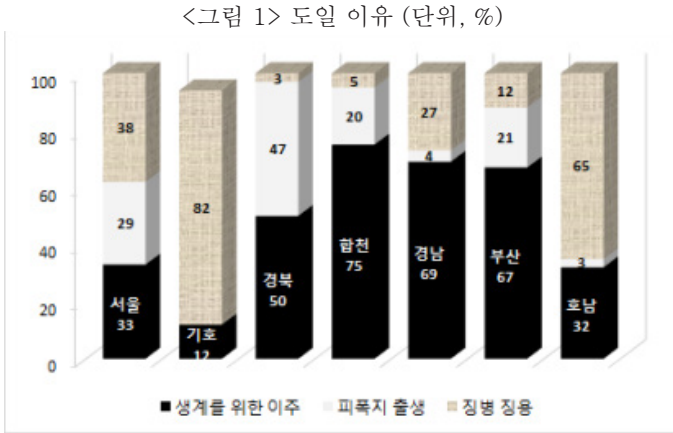
그렇다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에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대거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의 이주, 즉 도일배경에 관한 질문이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을 대상

19)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138쪽.

20)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39쪽.

21)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39쪽. 1974년 당시 합천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정기장에 의해 조사되었다.

으로 실시된 각종 조사결과는 피폭자들의 도일이유가 크게 세 가지, 즉 강제 징병·징용, 피폭지 출생, 또는 생계를 위한 이주로 나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은 협회 회원들의 도일 이유를 지역 출신 별로 정리한 것이다.<sup>22)</sup> 위 세 가지 이유 중에 합천 출신자의 75%는 생계를 위해 도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20%는 자녀세대로 일본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5%는 강제 징병·징용으로 인해 히로시마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003), 140쪽.

일제 강점기 때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히로시마로 대거 이주한 배경은 다른 지역 출신의 조선인들이 도일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이주를 한 시기는 1922~1934년 기간과 1938~해방기인데, 합천 출신 도일자가 많았던 기간은 앞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산미증산계획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1930년 조선의 총경작지 면적의 55.6%가 소작지로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작농민은 전체 농민 중

22) 이치바 준코, 같은 책, 140쪽. 이치바 준코는 서울·기호·합천·부산에 관한 자료는 ‘한국교회연합회’(1979), 경북에 관해서는 1979년 협회와 시민의 모임이 행한 조사결과(『재한피폭자실태조사공동보고서』에 게재)를 근거로 하였으며, 호남에 관해서는 1972년, 경남에 관해서는 1977년의 협회 등록 조사표를 근거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46.5%에 달하였다.”<sup>23)</sup>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합천에서도 일본인의 식량 확보를 위한 산미증산계획이 실시되었다. 이치바 준코의 연구에 따르면, 쌀 중심의 식민지 농정으로 인해 쌀 이외의 잡곡 생산이 중단되었다.<sup>24)</sup> 또한 일본의 방적·제사자본의 안정된 원료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합천지역에 육지목화재배와 양잠업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합천 지역의 농민들이 영위했던 농업구조는 왜곡되었고, 일제의 통제와 수탈, 자본의 집약 등으로 인해 몰락한 농민들 중 많은 수가 일본으로 구직을 위해 도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합천 지역을 강타한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 또한 합천 농민의 도일을 격화시킨 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시대 한 때 합천지역은 ‘협천(陜川)’(좁은 내)으로 불릴 만큼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유독 취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5)</sup>

이치바 준코는 1974년 당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의 지부장을 맡았던 정기장이 ‘핵병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한 합천지역거주피폭자조사(5,001명 대상)의 결과물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서 1975~1976년에 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천에서 히로시마로 향한 사람들의 이주 흐름을 다음 네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다.<sup>26)</sup>

23) 남근우,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호(2011), 168쪽.

24)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225쪽.

25) 합천이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쌀농사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은 20번 구술증언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합천용주면으로 귀환하여 정착했던 그녀는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합천지형이 쌀농사와 비에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7, 8월 되면 비가와 자주 오잖아요? 물이 담고 여기서 그때는 하천이 모도 깨끗이 안돼가 있잖아. 가문 물이 모 비가 많이 있으면 3일 4일 요래 장마가 지면 물이 갈 때가 없어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 저 합천 골짜기 노르치라는 대까지 올라오고 노르치가 여서 2km가 넘어요. 그거 나락이 한참 퍼서 요래 말이 익을 썩에는 보드랍고 나락이 퍼가 지금인자 고경도 땀을까다. 알 익을 썩는 꾸중물 쪼매만 들어가면 이거 마 나락이 벼가 안 커올라온대요. 사 때한다 소리는 죽어뿌다 말이거든! 인자 그래가 요기 또 퍼가꼬 알 될라 칼 썩에 요릴썩에 또 물이 들어부면 알이 안드는거라. 7, 8월 되면 홍수가 많이 나잖아? 7, 8월 되면 여 지리 2km 20리 고꺼중 나락 심어 놓면 고마 물 한번 썩 가마부면 아무것도 물끼 없어요.

26) 이치바 준코, 같은 책, 280쪽.

- ① 함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은 1920년대 중기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② 1930년대 이후 함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1930년부터 1940년의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1941년 이후에는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 ③ 1930년대의 함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증가율은 조선 전역에서 일본 전역으로의 도일자, 혹은 조선 전역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④ 함천에서 히로시마로의 도일자 수는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다.

함천에서 히로시마로의 이주가 대체로 식민지 농정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이주자 중에는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일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sup>27)</sup> 이러한 내용은 23명의 구술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3명 구술증언자 중 22명의 부친이 1920~1930년대에 ‘생계를 위해’ 도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1명의 경우 부친이 1942년에 강제 징용되어 도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주경로를 살펴보면, 부친이 먼저 도일하여 자리를 잡은 이후에 귀국하여 모친과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간 경우가 대다수이다. 구술자들의 부친이 도일한 시기가 주로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 시기는 곧 그들이 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구술자 중 12명이 일본(히로시마 11명, 교토 1명)에서 태어났다. 8번 구술자가 1927년 생으로 가장 빠른 시기이며, 이후 1928년 1명(12번)에 이어 1930년대 8명(1번, 5번, 6번, 7번, 9번, 11번, 21번, 22번, 23번), 1940년과 1943년 각 1명(19번, 4번)이다. 이들 모두 부친의 고향은 함천이다. 조선 출생자들의 경우에는 2명(14번 경북 고령, 20번 경남 고성)을 제외한 9명이 함천에서 출생했으며, 그들이 도일한 시기는 생후 3개월부터 7세 사이가 가장 많다. 가장 나이가 들어서 도일한 17번 구술자는 12세에 도일하였다.

---

27)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3.1 독립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으로부터 민족적 억압과 박해를 받아서 도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171-179쪽 참고.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조선에서 도일한 구술자들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부친을 통해 도일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70~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의 구술증언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합천의 가족·친척·이웃의 연고에 의해 부친이 혼자 도일했고, 이후 자리를 잡은 후에 그들의 부친이 또 다른 고향사람들의 히로시마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즉, 히로시마에 터를 잡은 이주자들이 고향의 가족·친척·이웃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연쇄이주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래 5번 구술자의 증언은 당시 합천과 히로시마 간에 연쇄적인 이주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아버지가 얘기 하는데, 여 일본사람들이 전부 다 곡식을 다 뺏들어 가뿌고. 농사를 지도 공출이라케가꼬 왜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뺏겨어 가뿌고 한국 사람들은 여어 합천 시골에 사람들은 공출이 다 뺏기고 목을기 없어서 배고픔에 몬 이기서 전부 일본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래가 일본서 돈을 벌어가지고 배고픔을, 후세에 아버지가 얘길 해서 내가 알지, 애들한테 넘겨주기 싫어서 돈만 벌이모 땅을 사고 돈만 벌이모 땅을 샀다 이기라. 집에 처음에는 혼자 가서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 살아 보니까 합천서 합천 시골에 있을 때 배고픈 거보다 나으니까. 오라케가 일본에 마이 데꼬 들갔어요, 집에 아버지가. 마이 갔어요, 내 사촌형님들도 전부 아버지가 불러서 전부 사촌형님들 여러 명 전부. 집에 아버지가 9형제 중에 막낸 데.(5번 구술자, 1935년생)

12번 구술자의 경우도 위 5번 구술자의 증언과 거의 일치된 증언을 하였다. 즉, 부족한 식량생산과 공출에 시달렸던 합천 사람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도일하여 돈을 벌어서 고향에 땅과 소를 샀고, 이후 가족과 친척, 이웃들까지 도일에 도움을 준 결과 합천의 많은 사람들이 주소만 갖고도 히로시마로 모여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은 합천 출신 조선인들의 도일 원인을 제국주의와 식민지배라는 역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12세에 부모님을 따라 도일한 17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도일 전과 도일 당시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술했다. 그녀는 5살 때 썸 부친 혼자 돈을 벌기 위해 도일을 했는데, 부친이 떠난 날 밖에서 배웅하고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언제 오꼬?”하며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구술자가 1940년에 일본으로 건너갔고, 부친이 도일한지 8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그녀의 부친은 1933년에 도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간에 부친이 작은 오빠를 일본으로 잠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었고,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귀국해서 모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부친이 떠난 후 온 가족이 도일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구술자는 다음과 말했다.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서 무슨 일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국사람 가서 할 게 있어예? 노가다지. 또 젊은 사람 알랑가 모르겠는데 고물, 보루장사<sup>28)</sup>. 그런데 우리 큰 오빠가 한국 젊은 사람 몽땅 안 샀겠다고, 일본 갈라꼬 환장을 했어. 그래 일본을 혼자 갔어요. 와 갔노 카마 우리 작은 오빠가 일본 가서 앞번에 델고 가서 돈을 좀 벌어가 요새 돈으로 치면 천만원이라. 논 두마지기 값을 내보냈는데 우리 큰 오빠가 그 돈을 우리 엄마 몰래 훔치기 일본 갔어요. 동네 사람 좀 나 많은 사람이 꼬았는기라, 우리 오빠를. 꼬아가지고 그 돈으로 세 명이 갔어. 그거 가지고 그래 가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마 오빠가 탄 연락선 카는데 죄 탔는기라, 일본에 가고 싶어서. 그런데 쪼매 있던게 수상경찰서장이 우에 우두머리 안 있나? 우두머리 잡아가 전신에 묶어가 막 뚜두리 패고 야단이라. 나중에 본게네 수상경찰서장 자격증을 비주는기라. 그래 울 오빠 일본도 못 가고 돈만 내빼리고 한국을 왔어요. 그래 와가 2년인가 농사짓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도 그래싸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 델고 간기라. 결국. (생략) 증명, 요새로 치면 여권 그걸 내가 왔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 식구 다 데리고 갔어.(17번 구술자, 1928년생)

위 구술은 1930년대 중후반에 합천 지역 젊은 사람들의 도일에 대한 열

28)보루는 헌옷, 신발, 가방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루장사는 해당 재활용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망이 컸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에서 부친이 보내온 당시 거액의 돈을 훔쳐서, 그것도 동네 이웃의 핏에 빠져 여권(도항증으로 추정됨)도 없이 무작정 일본행 연락선을 타러 갔다는 점이 그러하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발급한 제반 증명서인 여권조차 없었던 그들은 수상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집으로 보내졌다. 17번 구술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큰오빠가 도일 시도를 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일이 있은 후 2년 정도 지나서 부친이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에 의하면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광열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인 도일자 수는 1930년대 중기까지 증가했다가 후반으로 접어들며 일시 감소했다.<sup>29)</sup>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5년부터 내무성 경보국의 “조선인 도일억제” 방침에 따라 뚜렷한 취직처가 없는 조선인의 도일을 불허하였으나, 193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1934년 10월 오카다 내각이 각의에서 결정한 「조선인 이주대책 요목」에 따라 조선인의 도일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8년부터 급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해 7월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간 “내선협정”에는 노동자 이외의 일반 조선인의 도항을 자유롭게 하되, “불령분자의 잠입방지 및 검거라는 입장에서 도일 조선인에 대해 연락선이 열차에서 일단 검문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30)</sup> 이러한 일반 또는 연고 도항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군수산업 분야에 조선인 강제 노무동원이 시작된 1939년 중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인 즉 일본 본토의 경제사정상 기존의 조선인들과 본토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sup>31)</sup> 결과적으로, 17번 구술자의 큰오빠가 도항을 시도했던 시기인 1930년대 중후반에는 수상경찰의 엄격한 검문검색으로 인해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가족의 증명이나 취직처 없이 도일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36년에 7세의 나이로 도일했던 13번 구술자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9) 김광열 외 4명,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서울: 제이앤씨, 2006), 21-22쪽.

30) 김광열, 같은 책, 24쪽.

31) 김광열, 같은 책, 27-28쪽.

[혹시 일본 갈 때는 뭐 타고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그때 연락선 타고 갔어. 우리 삼촌이 삼촌 밑에 인부로 쓸라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는 합천읍에 사람이고 하나는 여 일부면 사람인데 일부면 사람은 또 친척인가라, 우리 아버지 외가 친척인가라. 그래 우리하고 같이 버스 타고 대구 가가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날 저녁에 같이 했거든. 우리 삼촌이 시키더라꼬. (수상경찰이) “너는 어데 가노? 카거든 내가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일본에 노가다 일하러 벌이무리 갑니다” 이래카라고 시키더라꼬. (생략) 그런데 그 조선 가는 사람도 연락선 태아주고 일본 경찰서 가는 사람도 연락선 태아주고 아침에 연락선에서 내리가꼬 기차 타러 갈진데 심사할 때 고 나오는 두 사람 싹 빼내뿌데. 그래가 우린 어린게네 몰라가지고 삼촌한테 와 그 사람들은 안 오느냐꼬 물은게네 거는 조선으로 다부 돌리보낸다 이래. 연락선만 타고 가서 내리가 가서 다부 돌리보낸다 해. 아이구 참.(13번 구술자, 1930년생)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연락선 타고 가는 길에 밀감이랑 참쌀떡도 사준 아저씨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구술자는 이야기 했다. 이런 점에서, 합천에서 히로시마로의 가족 연쇄이주는 1930년대에 활발했으나, 가족이 아닌 이웃이나 일본에 연고자가 없었던 사람들의 이주는 1930년대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히로시마 거주 조선인 중 대다수가 합천출신이었다는 사실은 13번 구술자의 증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히로시마에 모여 살았던 합천 출신 조선인들이 서로서로 돕고 살았지만, 전라도 출신과 같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전라도 출신들은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사카로 이주해서 살았다는 언급을 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죠? 한 사람이 거기 가가 살기 좋으마 이우지 사람 초청하고 초청하고 이라다 본게네. 그 히로시마 있을 때도 그랬어. 시시한 합천정이, 시시한 합천정이 히로시마 다 모있다고. 히로시마 전신에 합천 사람이라. 우야다가 쌀에 미겔이 거 포뚝포뚝 전라도 사람이 있는 기라. 전라도 사람 경상도사람한테 그해서 몬살아 거는. 방 하나도 구하기 그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만치 힘들어. 인자와 그렇나 카른 방을 구헬라 캐도 경상도 사람들이 죄 사는데 방이 거 있다 있다해도 경상도 사람이 방 있다고 안 가르치주는기라. 즈그 합천사람 어디 있으면 넣고 그래한다고 그란게 그만치 전라도 사람이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는 마이 이래 따돌림을 받았어. 그렇다본게 전라도 사람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산 데가 오사칸데 오사까 거기 많이 모이 살아.<sup>32)</sup> 모이 사는데가 있는기라.(13번 구술자, 1930년생)

다른 한편, 23명의 구술증언에 따라 그들의 부친이 히로시마에서 했던 일을 정리해보면, 노가다(7번, 16번, 17번, 20번, 21번, 22번), 고철·고물장사(1번, 5번, 8번, 9번), 공장근무(2번, 3번, 4번, 6번, 12번, 15번, 19번), 여인숙운영(11번), 짐 하역(18번), 무직(14번)이다.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조선인들은 근교의 공업지대에 집중하여 공장 혹은 농림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파악된다.<sup>33)</sup> 구체적으로, 미쓰비시 조선소 작업원, 우지나항의 하역, 동양공업, 군 관계, 광도전기, 일본제강, 구레의 조선소 등의 공원이었거나, 또는 항만의 노동자, 현내 각지의 철도공사와 하천공사, 도로공사, 방공호공사, 항만공사, 터널공사 등의 토목공 등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남성들의 직종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그들 모친의 경우에도 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모친이 대가족의 살림을 도맡아 했었던 9번, 13번, 18번 구술자와 기억을 못한 일부 구술자를 제외하면, 모두 유급노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함바집’ 운영(1번, 14번, 16번, 22번), 하숙(2번), 공장(3번, 4번, 15번, 17번), 부친과 장사 또는 사업(11번, 14번), 혼자 장사(7번, 12번, 20번), 일본사람 집 청소·빨래(6번, 8번)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모친 뿐 아니라 숙모, 올케, 언니 등도 일을 했으며, 그들이 주로 일했던 공장은 통조림과 같은 식료품이나 슝, 양말 등을 만드는 곳이었다. 장사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함께 공사장 옆에서 조선인 노무자를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함바집을 운영했거나, 남편과 함께 고물, 고철을 주어다가 팔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숙이나 여인숙의 경우에는 주로 혼자 히로시마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았던 남자들을 대상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독신으로 모친 혼자 장사를 한

32) 3번 구술자는 히로시마에 미쓰비시 조선소가 건설될 때 조선인들이 오사카와 동경으로 상당수 유입되었다고 구술했다.

33)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37쪽.

경우에는 옛이나 어묵과 같은 먹거리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IV. 히로시마에서 조선인으로 살기 - 전쟁훈련의 일상화와 일, 원폭피해,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

이번 장에서부터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히로시마에서의 삶의 경험에 대해 기술하겠다. 먼저 히로시마에서 출생한 12명의 구술자들은 조선어보다 일본어를 더욱 더 자연스럽게 구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히로시마에서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래 7번 구술자의 증언은 이민자 2세로서 어린 시절에 모국의 언어를 배우기 싫어했었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해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무이가 나이가 들어서 일본에 가 놓으니까 일본말 잘 못 하시더라꼬. 그래서 일본말 잘 못 하니까 자연히 내한테 한국말로 가르치잖아요. 거기 듣기 싫어서 반항도 하고 학교에 못 오거로 했지. 부끄럽다고. 그런 시절이었어. 지금 내가 후회가 되지만도. 한국말로 하니까 학교 오는 게 싫었어. 일본말로 못 하시니까. (7번 구술자, 1930년생)

일본말은 내가 배웠지만도 한국말은 엄마 아버지 카는 이야기는 알아들어 도, 내가 카지는 못 하지. 카지는 못 했지.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지만 도 확실히 내가 말은 일본말로 했지.(8번 구술자, 1927년생)

대체로 기존의 이민연구는 이민자 1.5세나 2세는 “1세들의 전통문화에 무관심하거나, 그 전통문화에 일종의 수치심까지 느끼는” 사례가 흔히 나타나한다고 지적한다.<sup>34)</sup>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주변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류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라도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령 그들은 모국의 언어를 가족 내에서 부모와

34) 김왕배,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7호(2003), 63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쓸 뿐이고 공공장소에서는 사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민국에서 ‘타자’로서 위치 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 7번 구술자와 8번 구술자의 사례가 이와 관련 있다. 한편, 합천에서 출생한 후 어린 나이에 도일한 1.5세의 경우에는 언어 문제로 인해 소학교 다닐 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래에는 7세 때에 도일하자마자 소학교에 입학한 13번 구술자가 언급한 내용이다.

예, 언니도 한국에서 [국민학교] 2학년까지 했거던. 해가꼬 그래가 또 그 가서 3학년 올라가고 나는 1학년 들어가고 이랬지. [일본말 잘 되던가요?] 처음엔 일본말 몰랐지요. 몰라도 뭐 한국에서 일본말 학교에서 일본말 가르켜준거는 순 그거는 보이 가짜배기고 거서 말하는 거 하고는... 지금 여서 영어 배야 봐야 미국가면 그런기라. 그런게네 일본말 여기에서 배운다고 배워봐도 거 간게네 뭐 말 하나도 틀리데요.(13번 구술자, 1930년생)

구술자들은 언어문제 이외에 학교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은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구술자 중에 차별을 받았다고 언급한 내용은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놀림 내용이 거의 유사했다. ‘조센징’이라고 놀리는 일본 아이들을 피해서 학교 마치고 곧장 집으로 왔다는 구술자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또는 체격이 남달리 컸기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별로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구술자도 있었다.

한국인 친구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인이라 안 하고. 부모들끼리는 이리 잘 지내고 이래도 우리 애들끼리는. 거는 우리 한국사람이라쿠모 얼마 싫어했다꼬요. 그 당시에는. 싫어하고 그랬기 때문에. [놀렸나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몬 들은 체 하고 그렇게 하지 뭐. 조센징 부다노크노.<sup>35)</sup> 냄새 나고 돼지새끼다 우리말로는 돼지새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꼬요. 따돌리지는 았고 그냥 조센징, 조센징 쿠사이 글쿠고. 냄새 난다 쿠고. 쿠사이 쿠모 냄새 난다 쿠거든요. 요새는 보면 저가 더 더럽

35) 부다노크노(豚の子)에서 부다는 돼지, 노크는 새끼의 의미이다.

던데(크게 웃음).(9번 구술자, 1933년생)

그런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건 우리 반에서 키가 맨 뒤에 하나밖에 없었어. 키가 컸지. 몸이 크니까 몸이 크고 하니까 감히 바로 내 앞에서는 조센징이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겁이 났던가봐. 몸이 크니까. 우리 반에서 내 뒤에 하나 있었어요 키 큰 애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키가 컸어.(7번 구술자, 1930년생)

왜 안 놀리요. 디게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쪼매 (따돌리고) 그랬지. 내가 공부를 잘 했는가봐 지금 생각하니. 그래 뭐 선생한테 짜다로 뭐 좋지는 않아도 칭찬 한 번씩 받고 그랬는 거는 기억이 나요.(8번 구술자, 1927년생)

한편, 유아기에 일본에서 살았던 구술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여 본토에 공습이 잦았던 시기에 공습대비 훈련을 한 것으로 언급했다. 그 시기에 소학교를 다녔던 구술자 9번(1933년생)은 “공습경보 울리면 몸빼 입고 보코보(방공모) 쓰고, 그놈을 쓰고 바게스 들고 물들고 막 뛰가고” 했다고 구술하였다. 5번 구술자는 소학교의 공습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때는 일본이 벌써로 미국에서 전쟁이 인자 일본에 열추 다 돼 갈 무렵에 원폭이 널렸지 사실상 비행기가 마이 날라 왔어요. 공습이 심했다고요. 선생님들이 공습한다고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보쿠고(방공호) 드가라쿠고 또 학교 구석에 굴로 파 놔놓고 들어가 그래샀어요 연습도 마이 하고. 3학년 때 집중적으로 많았지.<sup>36)</sup> [하루에] 두 번도, 세 번도 할 때도 있죠. 연습할 때도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할 때가 있었고. 아 불안하지요.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5번 구술자, 1935년 출생)

여러 구술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당시 소학교에서 실시한 공습훈련을 요약해보면, 1945년 들어서 공습경보가 잦았고, 하루에 몇 번 씩 훈련을 했다. 경보의 유형에 따라 책상 밑에 납작 엎드리거나, 방공모 쓰고 물 바게스 들고 뛰거나, 또는 학교에 만들어 둔 방공호로 뛰어 들어가는 훈련

---

36) 5번 구술자가 소학교 3학년이었던 해는 1945년이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이는 당시에 소학교에 다녔던 아동들에게도 전쟁은 일상화된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알려준다. 한편, 이러한 공습훈련은 1945년에 직장생활을 했던 구술자 뿐 아니라, 결혼해서 또는 결혼은 안 했지만 무직인 상태로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12번, 17번 구술자는 집집마다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또는 굴)를 파고 대피하는 훈련을 했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붕대감고 치료하는 법 또한 훈련받은 것으로 전한다. 화재를 대비해서 물과 모래를 준비해두고, 폭격을 피하기 위해 전기소등 또한 훈련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때 생활이라카는기 참 일본 사람이 우리 이웃에 한국사람 많이 사는 데 모아가꼬 여자들은 붕대 감는 거 그런 거 배아고, 사람 다치면 말이지, 만약에 폭탄이 터지면 사람이 다치면 붕대 감는 거 그런 거 배아고, 불 끄는 바께스에 물 담아서 불 끄는 그런 거 배아고, 그런 거 모자 걸은 거 이래 덮어싸고, 방공모 있잖아, 싸고 도망가는 거 뭐 약 걸은 거 뭐 준비해가지고 누워 자다가 일어나서 가는 그런 준비 하고 이 전깃불도 밤이 되면 하늘서 전깃불이 안 비구로 말이지, 요런 거 뚜껑한 종이 갖고 이래 세워가꼬 이래 가라가꼬 그래 살아라카고.(12번 구술자, 1928년생)

예, 저 저 산꼴짝에 굴 파가지고 그 가서 식구대로 있고, [굴 크기는] 뭐 사람 한 요정도 되구로(인터뷰하는 공간 정도라고 표현) 파가지고 한 식구들끼리 물 거 가져가서 요 안만치 굴을 팠어. [그러니가 굴이] 많아야 되지. 느그도 파고 나도 파고, 집집마다 파고 물 떠놓고 모래 갖다놓고 폭탄 날 쪼면 물 끼얹고 모래가 불 끌라꼬. 내 열일곱살 때 훈련 억수로 했다, 불 끄는 거. (17번 구술자, 1928년생)

실제 1945년 8월 6일 원폭투하 시기에 학교에 있었던 구술자들은 건물붕괴로 인한 가벼운 신체적 부상 정도를 입었고, 학교 방공호로 대피했거나 집 근처 가족들과 함께 파놓은 굴로 대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구술자들

37) 5번 구술자는 학교에서 부상당한 미군 포로를 데리고 와서 교단에 세우고 선 생님들이 설명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학교에서 미군 포로를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적국인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중에서 원폭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사례는 1945년 당시 10대 중·후반의 나이로 직장에 나가있었던 구술자들이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직장 재직 중이었던 1번(철도기관국 정비기사 조수), 7번(철도역 전화선 수리기사 조수), 13번(정미소), 14번(저금국 또는 은행) 구술자가 이에 해당된다.

1930년에 히로시마에서 나서 자란 1번 구술자는 1945년 고등학교 1학년(15세) 때에 학도 동원을 당해 군수공장에서 무기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이후 졸업한 후에 철도역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철도역(기관국)<sup>38)</sup>에 정비 조수로 취직을 하였다고 한다. 원폭이 투하되었던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동료들과 출근을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1번 구술자의 경우는 폭격을 직접 본 것 뿐 아니라 주변의 건물붕괴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고, ‘검은비’ 피해까지 입은 것을 알 수 있다.<sup>39)</sup>

폭격이라는 걸 몰랐어요. 기관꼬 땡길 때 b-29가 스무남대 어디를 폭격하고 오는 건고 우 오는 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생략) 내 다보고 있는데 평, 헛디다. 우리 사진 찍으면 마그네슘 터지잖아요. 피가 툰 하지만 피가툰은 봤지, 동크. 내 생각엔 퍼뜩 뒤로 가면 역에 수화물 실어 다 나르는 통로가 있어서. 거기 나와서 퍼뜩 광장에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맨 뒤에 서가 있으니까 나와 가지고 내려서 두발 디디니께 시커먼 먼지바람이 와가지고 자빠뜨렸어요. (생략) 자빠진게네. 그때 딱 내려옵니다. 함석에 쪼그렸어요. 그게 무겁습디다. 좀 들려 있으면 내가 대변에 쫓아 나올 건데 무거워서 못 나왔어요. 손이 이리 (앞으로 내밀며) 다리는 뒤에 있고 자빠졌는데 위를 누르고 있으께네. 내 뒤에 사람은 아마 머리를 다쳤을지 싶어요. 나는 이마하고 입수그리하고 피가 나고 그랬더마요. 그래갖고 다쓰게찌, 한국말로 도와도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석을 딱 눌러서. 오데고 오데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 좀 밝아집디다. 그래서 팔을 빼가지고 다리를 빼고 팔을 빼려니 물려서 도저히 안 빠져요.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가 팔이 부러지더라도 나가야겠다. (생략) 나오니께 빗방울이 또둑.

38) 구술자는 기관꼬라고 발음하였다.

39) ‘검은비’는 방사성낙진이 비와 함께 내린 것을 말하며, ‘죽음의 재’(방사성핵 분열생성물)라고도 불린다. 방사선은 인체에 강한 침투성을 가지며 조직세포에까지 근원적 장애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31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빗방울이 똑. 소나기 올라면 빗방울이 떨어지지요. 그래 우리가 일본말로 욱을 했지요. 더런 놈의 새끼들이 또 기름을 뿌렸나보다. 딴 데는 기름을 뿌려서 태웠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검은 구름이었나봐. 우리는 이 삼빨 맞다가 왔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성 중에서도 당시에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15세였던 13번 구술자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에서 동생들을 돌봐주기 위해 소학교 3학년까지 마치고 퇴학을 했던 13번 구술자는 15세가 되던 해에 종이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16세가 된 그 다음 해가 1945년이었는데, 그해 초부터 인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70~80명이 수시로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러 왔다고 한다. 구술자는 “가들은 학생”인데 소학교 자퇴한 자신의 처지가 비교가 되어서 4월말에 인쇄소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동네 통장아줌마가 찾아와서 “아이고 안된다, 놀면 이내 그 정신대 나온다고. 어디든지 빨리 댕기라”하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쌀 정미소에 이내 취직을 했다. 새로 다니기 시작한 정미소에도 근로정신대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8월 6일 아침에 출근해보니 남자 근로정신대 여러 명이 밤샘작업하고 퇴근하려고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는데 폭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도장 찍을라고 문을 열 때에 마 뭇이 뻥뻥 커더라꼬. 그래가꼬는 똑 뻥뻥 컴서로 꼭 내가 전기 번개 치듯이 뻥뻥 커는데 그래 “사쨌상 전기 췌십니까?” 칼라하는데 그말 떨어지는데 고마 집이 콕 내려앉아버렸어. 콕 내리앉아뻗는데 내가 고마 거 깔리뻗는기라.(생략) 그런데 야들이.. 햇살이 확 퍼졌거든요. 햇살이 확 퍼지가 있었는데 어두바가 안 보인다 한게네 ‘야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깔리가꼬 ‘뵤 소리 하고 있노’ 싶어가꼬는 막 살리줄라 한게네 그래 아들이 한 아가 내 발로 툭 차더라고. 발에 걸린게 “아, 여다”, “여 발이 대있다” 함시 그래가 마 발로 더듬어가 확 잡아뻗는는데 그때 마 창자도 다 빠지나가는 것 같고 엄청시리 아프더라고. 그럴 때에 사무실에 유리가 전신에 만신에 깨지가꼬 거따 대고 마 꺼내뻗게네 그런데 유리가 막 이런 테도 췌기고 다리고 뵤시고 전신에 마 다.. (생략) 폭심 7일 만에 그날 처음으로 욱지 와와 논게네 것도 히로시마 시내 아이고 시나이 지 거서 인자 중학교, 중학교서 치료를 하는데 머리 다 끊고 여 유리를 빼

내는데 내 얼굴에서요, 유리 빼낸 기 그 같이 따라온 사람한테 손 피라 캐가 그 유리 빼는 사람이 말입니다. 손을 이리 편게네 우리가 손에 이리 (손 바닥에 수북하게 쌓였다고 표현) 이마치 되더라.(13번 구술자, 1930년생)

피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당일 오후 늦게 13번 구술자는 구조를 하러 온 군인들이 부상정도가 심각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배로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아, 여가 어디 섬이다” 싶었다고 한다. 막상 거기 도착해서는 차가운 세멘(시멘트) 바닥에 가마니 깔아놓은 곳에 다른 피해자들과 누워있었는데, 당시 치료라고 해도 상처난 곳에 ‘아까징기’<sup>40)</sup>(“물 반 바게스에 아까징기 한 병 탄 것) 발라주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온몸에 박혔던 유리조각이 그대로인 채로 일주일을 거기에 누워있다 보니 온몸이 굵아서 그나마도 안 바르겠다고 버티던 중에 자신을 찾으러 일주일째 수소문 하고 다녔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집근처 중학교 건물로 와서 몸에 박힌 유리를 빼내게 되었다고 한다. 고통이 된 지금까지도 온몸에 유리과편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13번 구술자의 사례는 왼쪽투하 당시에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열선과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지만, 실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물과 각종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신체적 부상도 상당히 심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14번 구술자의 경우도 직장에서 폭격을 맞은 사례이다. 14번 구술자의 경우 피폭 당시 17세의 나이로 저금국(은행)에 취직해 있었다. 이 구술자의 사례가 특이한 것은 조선인으로서 당시에 흔하지 않게 저금국에 취직을 했다는 것이다. 구술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탓에 담임 선생님이 시청이나 저금국 둘 중에 원서를 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여자직업으로 시청보다는 저금국이 낫겠다 싶어서 택했다는 것이다. 필기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면접을 보는데, 큰오빠 직업을 도비<sup>41)</sup>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조선사람 친척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있다고 답을 하여 떨어

---

40) 머큐로크롬(소독약)을 흔히 ‘빨간약’이라고 불려왔다. ‘아까징기’(일본어: 赤チンキ)(요오드팅크를 일본어로 표기한 요오도징끼(한자를 한국말로 읽으면 옥도징기)에서 요오도를 빼고 빨강다는 뜻의 아까를 붙여서 부를 때가 많았다.

41) 도비쇼쿠(ドビショク)의 줄임말.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당시에 도비는 조선인들의 직업으로 간주되었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질 줄 알았는데 결국 합격했다고 한다. 14번 구술자의 원폭피해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날 인제 딱 일을 시작할라고 이래 있는데 막 ‘파-악’ 하는 기라예. 그때 훈련도 많이 받았습시다. 뭐 철모도 주고. 숨으로 맨들은 모자도 주고. 근데 그 쓸 여게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팍 해놔노니까. 그래가지고 훈련은 받아왔고 책상에 의자를 밀어내고 책상 밑에서 엎드렸어요. 눈코입 누지리가지고 엎드리 가지고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잠시 실신을 했어요. 실신한기 정신을 돌아와 깨니까네 의자고 책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 혼자 탁 엎드리가 있는데 전신이 피바다에 내가 엎드리가 있어요. 왜 그랬냐카. 다리 왼쪽 다리 [발]등을 우리가 팍 파고가지고. 혈관을 끊어가지고 여가 막 피가 나와가지고 온데 막 거기에 엎드리고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일제시대 그 전쟁시대가 되놓으니까 남자들은 국민복이 있고 여자들은 몸빼즈봉을 맨들어 입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날라와가지고 전신에 쫓사가지고 온 전신이 상처투성이. 머리는 또 폭풍이 얼마나 썩니까. 또 열풍이 또 불었거든요. [머리가] 곤두서가지고 머리 밑에 우리가 쫓사논게네 피 막 이래 나가지고. 온데. 뭐. 얼굴도 어디 성한테 하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지 뭐. 예. 얼굴을 모르겠데예. 전신 피투성이제. 뭐. 상처투성이제. 그때 유리로 쫓사논게요. 손이고 뭐. 전부. 피투성인데.(14번 구술자, 1928년생)

14번 구술자의 경우에도 13번 구술자와 마찬가지로 군인들에 의해 근처 섬으로 실려 갔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으면서, “매일 매일 시체가 산덩이 같이 재가지고 기름을 뿌리가지고 태우고”, 또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진 사람들에게 파리가 모이고, 그 결과 구더기가 부글부글하고 피비린내가 나서 거기서 며칠 지내기가 무척이나 괴로웠다고 말했다. 부상당한 채로 겨우 집을 찾아갔더니, 직장에서 피폭당한 큰오빠, 작은오빠 모두 피폭당한 후 온몸이 뜨거워서 강에 들어갔는데, 강물이 너무 뜨거워서 강 밖으로 나와 겨우 집까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큰오빠가 “딸아들은 여기 놔두면 안된다. 미군들이 와가지고 육보인다”고 성화를 해서 억지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술자 중에 2번과 8번의 경우에는 1945년 당시 18세로 결혼하여 임신 중이었고, 12번은 18세로 결혼한 상태였다. 이들이 당시에 결혼을 한 이유로 ‘조용’(징용(徵用)) 또는 근로정신대에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가족들이 급하게 결혼을 시켰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12번의 경우 1944년 5월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5개월 동안 무급으로 군용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한다. 1944년 8월에 ‘여자근로정신령’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일본정부가 본토 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강제동원 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이다. 12번 구술자는 17세였던 1944년 4월에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근로정신대로 차출되었다고 한다.<sup>42)</sup> 10대 중후반 나이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근로정신대 때문에 당시 합천 출신의 1.5, 2세 여성들도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구술자 2번, 8번, 12번 모두 정신대를 피해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사례이다. 전시동원 체제 하에 인구 감소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낱아라! 불려라! 국가를 위해!’(‘우메요 후야세요’)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근로정신대 동원에 제외되었다는 것이 12번 구술자의 증언이다. 당시에 모친이 “시집보내야 되지, 저래 놔두가 안 된다”하면서 중신애비를 통해 남편감을 물색하는 바람에 자신도 몇 개월 후에 곧장 결혼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1.5, 2세의 일과 결혼 경험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구분된다. 일본말을 할 줄 알고, 일본의 공교육체제를 따랐던 1.5, 2세들은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부모세대와는 달리 ‘더 나은’ 또는 일본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0년대에 본격화된 전시체제는 강제동원이 가능한 연령의 인력이자 군사력인 그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제의 전시체제 강제 근로동원이 합천 출신의 이주민 자녀세대들의 일과 결혼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1945년 8월 원폭투하 당시에 그들이 어디에 있었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42) 12번 구술자는 1944년 당시 일본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속담 ‘네코노 테모가리다이’(猫の手も借りたい)를 자주 쓰였으며, 자신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이 시대에 놀면 안된다’라는 말을 들으며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었다고 회상했다.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한편, 원폭피해 이후 8월 15일에 친황이 패전을 선언을 했을 때 구술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당시에 나이가 어렸던 구술자들의 경우에는 별 특별한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했으나, 10대 중·후반 구술자의 경우에는 각자 짧게라도 가졌던 생각을 기억한다고 했다. 위에 직장에서 원폭피해를 당했던, 세 명의 구술자와 9번 구술자는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구술했다.

[원폭 때 할머니를 잃어버려서] 할매 찾아서 한 일주일 넘게 땡기다가 해방이 됐다. 친황이 해방 방송을 할 때 할매 찾으러 갔다 오다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라디오도 요새 맨치 깨끗하지 않히고 그렇지만 나는 그 방송 소리 들었습니다. 참 낙담이 됩니다.(웃음) 이러면 안 되는 소리지만. 우리 댄에는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행복했다고.(1번 구술자, 1930년생)

일본이 졌다쿵개네 ‘아 이제는 우리 한국에 갈 건가’ ‘한국에 살 건가’ (웃음) 속으로 좋았지. 근데 일본 사람이 막 가지 마라고, 아버지 엄마는 가도 나는 놔두고 가라고 막 그래쌌더라, 일본 사람이.(9번 구술자, 1933년생)

들었지. 그때만 해도 나가 어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기 좋고 이런게네 뭐 막 일본사람들 방송 듣고 울고 이래싸도 나는 다치갖고 절에 놓여 절에 있을 때 그때 절에 있었는데 난 눈물도 안 나고 고마 아무 것도 그래 생각 못 했어. 나중에 되게 한국사람 한국에 보내야 된다 카고 그랄 때 그때 인자 ‘아, 그렇구나’ 싶었지.(13번 구술자, 1930년생)

일본에서는 뭐 우짜겠습니까. 뭐래싸도 일본보다도 미국 나라가 잘 산다 아입니까? 그래노니 뭐 저 어쩔 수가 없는 기라. 이 사람도 일본사람들도 참 강한데 국민들이 원폭바람에 그 친황이 손을 들었다 아입니까. 아이, 할 때요. 국민들이 그리 울어쌍데요. 울고불고. 마 행복했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우리는 잘했다 컷어요.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는 고마 자존심을 없애고 손 든 거 보면은 너무 잘한 기라요.(14번 구술자, 1928년생)

1번 구술자의 경우 ‘우리’ 댐에는 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항복을 해서 낙담을 했다고 하였다. 히로시마 출생이었던 그는 당시에 일본인들과 자신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인식했고, 그래서 천황의 항복에 ‘낙담’을 한 듯하였다. 반면, 다른 히로시마 출생으로 당시 13세(소학교 6학년)였던 9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속으로 좋아했다는 언급을 하였다. 앞서 원폭투하 당시에 건물붕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던 13번과 14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답답하게 느꼈거나, 또는 천황이 항복을 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 잘 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구술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봤을 때, 성장기 대부분의 시간을 히로시마에서 보낸 1.5, 2세의 경우 당시 일본의 항복과 조선의 독립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느껴야할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즉, 구술자 중 누구도 그들이 일본의 항복 소식이 일본인들처럼 슬퍼서 울었다거나, 조선의 독립 소식이 기뻐서 좋아했다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 대한 해석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 당시 일본과 조선의 경계인으로 살았던 그들이 오늘날과 같은 일국사적 맥락에서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을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V. ‘낮선 고국’으로의 귀환과 ‘이방인’과 같은 삶의 시작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귀환 시기에 대해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회의 199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526명 중에 1945년에 귀국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77.7%에 달했다.<sup>43)</sup> 그들은 해방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귀국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술 증언자 23명에 따르면, 빠르게는 8월부터 늦어도 1946년 1월에는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구술자들은 194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한 배편은 11명이 야미(야미)배 (또는 밀선)를 탄 것으로 기억했다. ‘야미’는 어둠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밤에 개인 선박을 이용해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9쪽.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서 밀선처럼 몰래 다녔던 목선을 의미한다.<sup>44)</sup> 그 이외에 6명은 연락선(군함)을 탄 것으로 기억했고, 나머지 6명은 너무 어려서 어떤 배편으로 귀국했는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3번 구술자는 당시에 가족들이 야미배를 타고 나온 이유에 대해 히로시마의 살림을 최대한 많이 챙겨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9월달에 나섰어요. 9월에 나선 사람이 부산에 대인기, 촌에 있으면서 농사지를 판에 목을 양식, 촌에서 팔아가지고 콩, 장담는 콩, 간장 맨들어 목는다고. 한국 사람 일본 왜장 다니게 안 좋아하고, 담은 거 모두 물건 실을라고 야매 배를 탈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우리뿐 아니라 야매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타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각처서 타니게 많더라고요. 9월달에 나섰는데 데이기는 동짓달에 데있어. 그만큼 바다를 뱅뱅 돌고, 만날 고장나고 태풍 만나고. 사고도 나고 그랬지예. 나중에는 몸만 빠져나왔다. 고머리에 나선 사람도 죽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배가 파산이 되갓고.  
(3번 구술자, 1929년생)

작은 고깃배로 고기 실는 칸에 오랜 기간 몰래 타고 있어야만 했던 야미배에 대한 기억은 구술자들에게는 끔찍했던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특히 태풍과 바람이 잦았던 가을에 풍랑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닌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3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9월에 히로시마현 구레시를 나서서 야마구치현 등 몇 군데 항구를 들러서 동짓달, 즉 11월에 도착했다고 하니 족히 2개월 정도는 배를 타고 고생을 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11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하관에서 가족들이 타려다가 못 탔던 배가 바다 한 가운데에서 지뢰에 의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배를 탈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벌써 하나 터졌은께 또 있겠나”하며 타고 가자고 해서 다행히 안전하게 부산항까지 왔다고 구술했다.

---

44) 이연식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해방 후 일본에서 귀환한 자의 수는 약 110만 명으로, 그 중에서 밀선을 타고 돌아온 자는 약 3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주로 미 점령군이 도착하기 전부터 하카타와 센자키 등 서일본 지역의 귀환항을 통해 이뤄졌다.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오랜 기간 일본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님이 서둘러서 귀국한 원인에 대해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패전한 일본사람들이 피식민자인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아래 증언에서도 나타나지만, 조선에서 일본인, 특히 만주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내려오는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인들이 때리고 죽이는 등의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본 전역에 돌았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참 거서 우리는, 시내서는 땅은 일본 사람 땅이라도 집은 우리 집인데 일 년에 얼마씩 돈 내고 그래가고 있었는데 소문이 또 조센징와 조센징은 니.. 아, 조선에 가야 된다. 한국에 안 가마 조선에 안 가마 일본사람한테 맞아죽는다 이런 소문이 나는 기라. 그 소문이 참말인가 싶어서 이웃이 그 근처에 있던 일본사람은 “고마 거 살면 된다, 가지마라, 말라 칼라카노” 일본 사람이 사람이 참 좋습니다. 평소에 못된 거는 참 못됐고 이래도 평소에 평균적으로 사람이 좋아예. 사람이 좋고 이렇지. 친절하고, 친절하고 사람이 좋은데 그래 “여서 같이 살자” 이래 사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기라예. 언제 막 너도 나도 갈라고 막 짐 싸고 보따리 싸고 말이지 이래 쌓는데 그런 사람 봐서도 불안해서도 돈 사는 기라예. 그래가고 할 수 없이 시월 그름끼 나왔습니다. (12번 구술자, 1928년생)

11월 달에. (생략) 왜 그렇게 오느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일본사람을 가지고 건드린게네, 일본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어느 골짜는 누가 오데서 사람이 죽었더라, 빨래를 넣어놓고 며칠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가 보니까 일본 놈 때리 직있더라 그래산게 무서바서 있지를 묻는기라.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가 안 되는기다 우리 전부 다 이웃집마다 아는 사람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다 나왔어. 아는 분들 연락을 해서 우리 다 한국에 나가야 된다. (9번 구술자, 1933년생)

한편, 원폭피해자들의 귀환을 서두르게 한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주택 붕괴로 인한 거주지 문제, 그리고 치료의 어려움과 식량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원폭투하일 이후 전시재해보호법에 따라 2개월 동안 구급구호소(시내 11개소)를 운영했었는데, 10월 5일자로 폐쇄하였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다.<sup>45)</sup> 7개소에 일본의료단 병원을 개설하여 치료를 담당했으나, 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했기 때문에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귀국길을 서둘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그들은 다른 전쟁피해자와 다를 바 없는 전재자(戰災子)이자, 일본인의 핍박을 두려워서 떠난 난민과도 같은 존재였다.

실제 당시 남한의 미군정은 해외 귀환자, 월남민, 일본인을 큰 틀에서 난민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귀환자와 월남민은 식민지배와 더불어 해방 후의 혼란으로 이중의 피해를 입은 집단이므로 전 민족이 함께 구호해야 할 집단이라는 공감대”가 남한사회에 1945년 연말까지는 확산되어 있었다고 한다.<sup>46)</sup>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145-146쪽. 이연식에 따르면, 미군정과 GHQ 사이의 공식송환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45년 10월말부터 귀환자에 대한 ‘구호’ 정서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구호’ 정서의 기저에는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동포의 공업기술을 하루바삐 총동원시켜 국가건설에 공헌해야 한다는 ‘동포애’와 ‘건국’의 정서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7)</sup> 하지만 귀환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1945년 말부터는 귀환자를 ‘사회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연식은 “갑작스러운 인구 유입으로 1945년 말부터 주택, 실업, 식량 등 각종 생활난이 심화되자 모국인의 태도도 차갑게 식었다”고 설명했다.<sup>48)</sup> 모국인의 냉대와 함께, 연합국 총사령부의 재일 귀환자 재산반입 불허 및 숨겨온 일본 돈마저 동결시켜 버려서 1946년을 기점으로 재일 조신인의 귀환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미 귀환했던 사람들마저 밀항을 통해 일본으로 재이주 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sup>49)</sup>

해방직후의 국내 사정이 이러했는데, 어렵사리 귀항에 성공한 합천 출신 자녀세대들에게 ‘조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구술자 23명 전원은

4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97쪽.

46)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145-146쪽.

47) 이연식, 같은 논문, 146쪽.

48) 이연식,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148쪽.

49) 이연식, 같은 논문, 147-148쪽.

야미배 또는 연락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처음 도착했었다. 히로시마를 떠나 올 때부터 귀환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의 등쌀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구술자들이 다수였는데,<sup>50)</sup> 큰 기대나 설레임 없이 도착한 부산항의 풍경은 그들에게 매우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3번과 17번 구술자가 처음 마주한 부산항의 모습이다.

그래 우리 인자 내리가꼬는 어 부산, 부산, 부산역에 내리가 부산역에 가 본게네 막 일본 사람도 일본 드간다고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있는데 막 화장실에 가고집어도 화장실도 업꼬 거 부산역이 전신에 만신에 똥이 고. 사람들 전부 화장실이 막 넘고 이런게나 마 전부 아무 데나 보느기 라예. 그런게 전신 만신에 부산역이 마 그 마 똥이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놀 수 뻐이 없는 기라. 얼굴만 가루고. (13번 구술자, 1930년생)

[부산항에 내리니까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일본 집은 커다란데 한국 집이 똑 삿삿 얹어놓은 거 같애. 내가 볼 때. 집이 내가 보면 전부 삿삿 얹어 놓은 것 같애. 새카마이. 조선사람들은 아주 못 묵고 부산 온게 사람들 못 입고 못 묵고 거기 물 퍼는 사람이 새카마이 사람 같도 안 해요. 부산 온게네. [일본사람들이랑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일본 사람들은 깨끗하지] 일본사람이. 우리 이야기할 적에 일본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요. 내가 알게. 내가 일본서 커면서 사람들이 선호고. 동정심이 있고. 문사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래요. 내 이런 소리하면 누가 날 때리직일라 할끼지만은. (17번 구술자, 1928년생)

13번 구술자 이외 다른 몇몇 구술자들도 부산항에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던 탓에 ‘더럽고’ 오물 천지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17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삿삿’처럼 생긴 초가집을 보고 신기해했었으며, ‘새카만’ 부산사람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일본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히로시마 저금국에서 일했었던 14번

---

50) 예를 들어, 7번 구술자의 경우 큰형님이 만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모친이 귀환을 서둘렀다고 한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무이가 꼭 갈라 그러니까, 느거 안 가모 내 혼자라도 간다 이기라. 그러니까 어무이 없이는 못 살겠고 억지로 따라갔지 나는. 근데 우리 바로 우 형은 안 간다 해 가지고 남았잖아요.”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구술자의 경우에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나, 오빠와 모친의 강제로 합천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다고 하였다.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에 딱 내린게. 그래 내가 이게 부산에 와서 보니까는 일본 살다가 그런게 ‘아이고 이래가 내가 문살겠다. 다부 돌아가던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묵었거든에. 우리 어무이가 시골로 고마 데리가는기라예. 그래는께 이리 꼼작도 문하고 있다가 직장을 가지라 현케는 학교에도 나오라쿠고, [대구] 전신국 거기도 간께는 나오라커구 이래 했는데 우리 오빠가 “절대 안 돼. 시집을 가야되지, 안 된다” 이래. 살림 사는 걸 배와야 된다고 절대 몬 가구로 하는 기라요. 우리오빠가 나를 망치뿌리써. 일본서도 우리오빠가 들어서. 여와서는 또 둘째오빠가 들어서 그랬지. 그래서 나를 망치뿌리 써. (14번 구술자, 1928년생)

익숙하지도 않았고, ‘간절히’ 원해서 귀환한 고향이 아니었기에 자녀세대의 ‘고국’ 귀환은 ‘낯선’ 장소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하는 난민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큰오빠 때문에 ‘억지’ 귀환했고, 작은오빠 때문에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억지’ 결혼을 해야만 했던 14번 구술자는 조선에 와서 “말도 문하게 고생”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12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합천으로 온 이후에 먹고 살기 막막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기 위해 마산에서 밀항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대마도에 잠시 정박했을 때 일본 경비선에게 잡혔었는데, 경비선에서 한눈 판 사이에 선장이 배를 돌려서 다시 마산으로 돌아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는 12번 구술자는 합천으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가져왔던 일상용품들을 팔아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고 한다. 일본에서 모은 재산을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구술자 가족의 경우 대체로 큰아버지, 삼촌 등 일가친척들 집에서 얹혀서 살다가 어렵사리 분가했으며, 조그마한 땅에 농사를 지었으나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여 풀, 소나무 껍데기, 칩 등으로 연명했다고 한다. 아래 6번 구술자의 증언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이 없어가지고 큰집 작은 방에 살다 왔어요. [아버지는 화상 당하셔서]

항상 언자 약 바르고 그랬지요, 한국에 나오시 가지고도. 약 바르고 그래 가지고, 낮은 데 보면 양쪽에 전부 다 [화상흉터에] 사람들이 보모 무작한 말로 나환자매이로 그랬었어요. 색깔이고 전부 다 고마 벗겨져서. 침에 나가 고생 마이 했습니다. 큰집에서 논 (조금) 쥐 가지고 지 가지고 사는데 것 갖고 되는가. 침에 와 가지고는 그것도 저것도 없지요 침에 와 가지고는. 산에 가 가지고 산을 넘어서 소나무 꺾디 뺏기 가지고, 송진이라 카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 마이 못어예. 나물도 캐고 콩 이파리, 콩 이파리 그 거 어데서 구했는지 구해 가지고 그것도 마이 묵고. 지겹도록 못어예. (6번 구술자, 1934년생)

6번 구술자의 증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히로시마에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 특히 화상으로 인한 피부상처가 깊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나환자’(한센병 환자)로 오인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sup>51)</sup> 17번 구술자를 포함한 몇몇 여성의 경우에는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시집을 가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sup>52)</sup> 상당수 구술자들의 귀환 후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로 귀환 과정에 배가 파산되어 히로시마에서 가지고 온 짐들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연락선이나 야미배에 실을 수 있는 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일본에 두고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 귀환과정에 대한 구술증언 사례에서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일본에서 재산을 챙겨왔지만, ‘고국’에 도착한 이후 부모님이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재산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아래 1번과 13번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

51)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 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구술자들의 증언에는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히로시마에서 귀환했고, 원폭피해자라는 사실을 비밀로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주요한 이유로, 당시에 자녀들이 원폭피해자라는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지면 결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향후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52) 구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와가 오자마자 날 갖다가, 식구도 많고, 쌀도 없고. 쌀이 어디있노?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세경을 보낸기라, 저 가조로. 거창 가조로 나를 시집을 보낸기라. 식구는 많고 쌀은 없을겐, 나를 입 얻어묵으라꼬 시집 보냈어. 우리 큰오빠는 ‘이래선 안됐다, 할 수 업따’ 얻어묵으러 갔는데, 충청도 거는 벌이 너르고, 묵고 살기가 됐는가봐. 그리 우리 오빠 들이는, 식구 들이는 그리 가고. 우리 엄마하고. 내 데리고 있는 동상하고 아버지 하고 촌에서 그러고로 썩 뜯어가 끼리 묵고 그리 서이 살고 나는 시집가고.”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처음에는 우째 모았던 간에 모친이 돈이 있어요. 나는 120원씩 너달 보냈고, 9월달에 7개월 동안 만원씩 받은 것 보낸 것 밖에 없는데 돈이 몇 천원 있었던 모양인데. (생략) 처음엔 짐도 없고 받도 없고. 처음에는 모친이 잡곡 팔아서. 동생이 있으니 그 당시는 잡곡도 귀했어요. 잡곡을 팔아서 쪼매 했는데 삼촌이 노름쟁이라보니 논을 사보게네 수왕 동촌인데 하늘 맡인테 것도 도가리가 스물네 쪼가리 있습니다. 이천 오백 원을 모친한테 빌려갔는데 못 갚으니 우리한테 떠넘겼어요. (1번 구술자, 1930년생)

근데 부산역에 내렸을 때게 부산은행에 가마 하내이 앞에 천원씩 그 할인 안 하고예, 천원 그 돈 그대로 바까주더라고예. 그런데 돈을 갖다가 지푸게 너가 있어놔서 짐 속에다 너놔 가지고서는 그걸 그거를 몬 꺼내가지고서는 돈 천원만 바깥는기라요. 천원만 차비하게 바꾸고 인자 아버지 오시면 바꾼다꼬. 그래 나머지는 한국 가와서 돈 우리 하나도 쓰도 못했어요. 그 돈을 인자 친척 사람이 바까준다고 바꾸러 가가지고는 우리 삼촌 집 돈하고 막 우리 돈하고 세집 돈을 다 걷어 갖고 마 바꾸러 가디만 고마 안 오더라 카네. 그래 안 오디 나중에 인자 몇 달 후 우리 아버지 나오고 나서 몇 달 후에 와가지고는 오히려 우리 아버지한테 돈 바까가 오다가 각쟁이한테 뺏기고 뚜들기 맞았다 카미 보약 한재 하고, 쌀 한말 하고, 밍태 그거 또한 때 하고 사가오라꼬. (13번 구술자, 1930년생)

한편, 모든 구술자 가족이 귀환 후에 어렵게 생활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구술자 중에는 부친이 귀환 전부터 함천 고향에 땅이나 가축을 사뒀기 때문에 귀환 후에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11번 구술자의 구술내용이다.

그래 갖고 한국 와 가지고 아버지 막 벌건 말 타고, 우리 쪼맨할 때 보모, 요새 같오모 자가용이지 그자, 벌건 말 타고 함천에 왔다갔다 하고 이래 샐는데. 그래 갖고 인자 아버지가 소를 갖다가, 송아지를, 소를 한 마리 사더만, 송아지 낳으면 저가 하고 큰 소는 우리가 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 소를 고른 골짜에 한 스무남 마리 사줬어. 사줬는데 그 사람들이 새끼를 다 낳으니까, 남의 집 소가 내한테 안 오도록. 예를 들어서 50원 주고 산 소가 한 마리에 만원씩 했는 기라. 그만큼, 요시 말로 쿠자면 응? 그



만큼 돈이 얼마나 많노. 그런께나 아버지가 머슴 다섯 대고, 잘 살았는 기  
라. (11번 구술자, 1939년생)

아래에 소개된 5번 구술자의 경우에는, 고향에 땅을 많이 사두었던 부친 덕에 귀환 후에 가족들이 경제적인 고생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친이 귀환을 하지 않고 일본에 체류하면서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일본에 부친 공장 운영을 도와주려 약 20 여 년 간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부친의 재력 덕분에 오히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예 우리들은 뭐 해방되고 한국에 와서 고생 안 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자체를 잘 해봐 노니까 여기 오니까 합천에 오니까 논이 한 백서른 마지기 됐어요. 예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거기 잘못이라요. 아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없이 살았으면은 돈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을근데 돈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몰랐단니까. 마흔 세 살에 내가, 마흔 세 살에 돈을 알았단니까. 예 거기 그러니까 내 일생을 생각하면 거기 잘못이라, 어릴 때 고생을 마이 해야 되는데, 가마이 보모 어릴 때 고생헌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나는 그건 못했잖아 성공을 못하고 전부다 아버지 어머니 벌어난 돈 다 까먹고 그래. (5번 구술자, 1935년생)

5번 구술자는 일본에서 부친이 마련해준 경제적인 풍족함 이외에도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요인으로 언어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에서 출생한 2세들과 어린 나이에 독일해서 일본학교 교육을 받았던 1.5세들은 고향인 합천에 도착했을 때 한국어를 제대로 쓰고 말할 줄 몰라서 적응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그 결과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었거나, 가족, 친척들과의 소통과 학업의 연속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5번과 11번 구술자의 구술 내용이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문 배왔지 하나도 몰랐지, 하나도 몰랐는데 뭐. 아예, 한국에 와가지고도 1년 있다 학교 들어갔는데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해방되고 나와 가지고. 아이고 말도 문 한다. 한국에 나왔는데, 이 바보라. 왜냐쿠모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밖에 나가모 집에서는 일본말로 가족끼리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통하는데 밖에 나가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일 년 학교 못 갔잖아예. 말을 모르니까 첫째. 못 나가고. 누나고 뗏이고 전부 다 1년 후에 같이 학교 들렀다니까.(웃음) 그러구로 1년 동안에 한국말 쯤해서 배안 거 학교 가 가지고 우사도 마이 했어요. 말이 옳은 말이 아이라 한국말이 아이라 그 당시 학교 땡기면서도 반쪽바리라. 반쪽바리라고 놀림 마이 받았어요. (5번 구술자, 1935년생)

몰랐지. 아버지가 할배보고 아버지 샀대. 나 따라서 아버지 산께네 아버지가 ‘아이고 할배다. 내 아버지인께네 너는 할아버지라 캐라.’ [할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캐. 아버지가 아버지 산께네 따라 땡기면서 아버지 쟤지. 그 래 또 아버지는 아버지 보고 자기는 오토상이라 카대. 내보고는 아버지라 카라 카대. (11번 구술자, 1939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 문제는 점점 해결되었지만, 한편 일본어를 다 잊어버려서 아쉬워한 구술자들도 있다. 하지만 구술과정에서 구술자들이 히로시마에서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일본어 단어를 자주 썼는데, 이는 어린 나이에 머리와 몸으로 터득한 일본어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VI. 나가며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 함천에서 부모님을 따라 도일하여 히로시마에서 거주하다가 원폭피해를 당한 자녀세대의 이주와 귀환 경험에 관해 생존자들의 구술증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은 일제 식민통치 하에 생계를 위해(또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도일을 행한 부모세대와는 구분되는 ‘수동적’인 이주의 주체이다. 해방직후 귀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들은 전재민으로서 생활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패전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핍박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고국’으로의 귀환을 결정한 부모세대를 따라 ‘수동적’으로 귀환한 ‘귀환’동포였다. 따라서 그들의 이주와 귀환 경험은 그들의 부모세대와 구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낯선’ 일본으로 가서 ‘고국’인 조선과 이주국인 일본의 양국 문화를 동시에 체득한 세대이다. 특히 그들은 사회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에 학교를 통해 일본 언어와 문화, 일본인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갔다. 또한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그들의 일본에서의 삶의 조건을 규정한 측면이 강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라는 경계인과 같은 양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들이 일본의 패전과 ‘고국’의 해방에 대해 부모세대와 동일한 수준의 인식과 감정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그들이 그러한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해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워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들이 일본을 떠나 귀환하면서 ‘고국’ 또는 ‘고향’에 대한 기대나 설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히로시마에서 피식민지 출신 이주민 자녀세대라는 삶의 조건 이외에도 그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일본의 전시체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 공습대비 훈련을 받아야 했으며, 소학교 졸업 전부터 그들은 전시체제에 따라 근로정신대의 동원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학교 졸업 이후에는 노동자로서 생산의 주체가 되었거나 또는 결혼과 임신을 통한 인구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또는 ‘강요’)받은 주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1945년 8월 6일에는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집, 직장 등 생활의 기반이 파괴됨은 물론이요, 자신과 가족, 친척, 이웃들의 생명마저 위협당한 원폭피해자가 되었다.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험난했었으며, 어렵사리 처음 도착한 ‘고국’과의 첫 대면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낯설고, ‘이국적’이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에서는 피식민지 조선인 이주자의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의 고향인 함천으로 돌아온 후에는 일본에서 살다온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의 수완에 따라 일본에서 가져온 재산을 이용해서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한 사례도 있었던 반면, 그나마 가져온 재산의 가치를 제값에 교환받지 못했거나, 고향의 친척이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나 이웃에 의해 모두 날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귀환동포’에 대한 구호 정책도, 사회적응 정책도 없었던 그 시기에 고향인 함천으로 돌아온 그들 중 대다수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과 기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면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23명의 구술자 개개인의 경험을 꼼꼼히 이 연구에 담아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지역과 세대 이외에도 남녀 구술자들 간의 경험 차이는 주목 할 만하다. 즉, 젠더정체성은 1.5, 2세들의 이주와 귀환 동기 뿐 아니라 양국 사회에서 그들의 삶의 조건에 영향을 준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향후 구술증언을 토대로 젠더정체성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적응, 또한 원폭피해자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주와 귀환, 원폭피해 등이 그들의 젠더관계를 어떻게 유지·강화, 또는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침략전쟁을 본토 히로시마에서 경험했고, 귀환 직후에는 함천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두 번의 전쟁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두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시체제 하에서 전개된 일상과 관계, 생존 전략 등에 관한 논의도 향후에 이뤄져야 할 연구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khmoon@changwon.ac.kr

주제어(Key Words):

일제강점기(Japanese colonial era), 함천(Hapcheon), 히로시마(Hiroshima), 이민자 1.5·2세(the 1.5 and 2<sup>nd</sup>-generation migrants), 원폭피해(atomic bombing)

(투고일: 2018. 11. 2, 심사일: 2018. 11. 8, 게재확정일: 2018. 11. 10)

<국문 초록>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일제강점기 합천 출신 이주 1.5, 2세대의 경험

문 경 희

이 연구는 1945년 8월 6일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합천 출신 조선인 귀환자의 국경 이동과 양국 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의 경험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주의 주체였던 부모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따라 현해탄을 건너갔다 다시 건너온 자녀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피폭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히로시마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폭을 당한 1세대이다. 하지만 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주 1세대인 부모님을 따라 도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한 1.5, 2세대이다.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자녀세대의 국경이동과 양국에서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은 부모세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천지역 사람들의 히로시마로의 이주 흐름은 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가? 둘째, 피식민지 출신 이주민 1.5, 2세의 히로시마에서의 일상과 원폭피해 당시의 경험은 어떠하였는가? 셋째, 해방직후 그들의 귀환 경험은 어떠하였으며, 히로시마에서의 이주 경험이 그들의 ‘고국’과의 첫 대면과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2017년 시점에 합천에 거주했었던 23명의 원폭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증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주와 귀환의 맥락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합천 출신 원폭피해 1세이자 이민자 자녀세대의 삶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한다는 점에서 식민지시기에 초점을 맞춘 해외이주와 귀환 연구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가 ‘일국사적’ 관점의 민족·국가주의적 수사를 벗어나서 피식민자로서 ‘능동적’으로 국경을 이동한 이민자 중에서도 합천이라는 지역성과 세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대, 전쟁, 그리고 원폭피해라는 요인이 그들의 이주와 귀환 후의 삶을 어떻게 관통했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Abstract>

Migrating to Japan, Atomic Bombing in Hiroshima, and Re-  
turning to the 'Homeland': The Experiences of the 1.5 and  
2nd-generation Migrants from Hapcheon during the Japa-  
nese Colonial Era

Moon, KyoungHee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experiences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who returned 'homeland' from Hiroshima after August 15, 1945. Specifically, it pays attention to the 1.5 and 2<sup>nd</sup> generation of Korean migrants from the Hapcheon region with a focus on their border-crossing experiences and living conditions in both societies. They are the first generation of the atomic bomb victims in Hiroshima. However, in the migration context, they are the 1.5 and 2<sup>nd</sup> generation who were born and (or) raised in Japan, and repatriated to the liberated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ir identities and life experiences in both societies must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arents in many aspects.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m have focused on their experiences of victimization. Yet, their life experiences as a dependent of their parents who crossed the state border back and forth on their own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those studies. This paper has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Firstly, why and how were the migration flows to Hiroshima by the people of Hapcheon formed? Secondly, what were their living conditions in Hiroshima and particularly, their experiences of atomic bombing like? Thirdly, how did they feel when they first arrived in their 'homeland' and how did their life experiences in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Hiroshima affected their settlement in Hapcheon? Oral interviews with 23 survivors collected from Hapcheon in 2017 a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tudies of emigration and return mig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y including the first generation atomic bomb survivors with the 1.5 and 2<sup>nd</sup> generation migration background as a 'new' research subject. It is also notable that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study showing how their life conditions and identities as a (return) migrant in both Hiroshima and Hapcheon were shaped by various elements, including generation, regional affiliation, and atomic bombing, other than ethnic identity.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 1·2세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창원대학교 경남학센터,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구술증언 조사사업』 (2017).
- 김광열 외 4명,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서울: 제이앤씨, 2006).
- 이치바 준코, 이제수 역, 『한국의 히로시마: 20세기 백년의 한국인원폭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서울: 역사비평사, 2003).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내 몸에 새겨진 8월 : 히로시마, 나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의 원폭체험』 (서울: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 \_\_\_\_\_, 『히로시마 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 (서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1).
- 전진성,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원폭 2세 환우 김형률 평전』 (서울: 휴머니스트, 2015).
- 정근식 편, 진주 채록,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서울: 선인, 2005).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8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 도일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귀환

### 2. 논문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이주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29호(2010).

김왕배, 「미주 한인 후예들의 민족주의: 민족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7호(2003).

남근우,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 민족, 조국 귀속성, 현실의 ‘3중 경계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1호(2011).

오은정, 「“완전 왜년이지, 왜년으로 살았제”: 히로시마 재일조선인 1.5세·2세의 귀환 서사와 해방공간」, 『한국문화인류학』, 51호(2018).

\_\_\_\_\_,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샤 되기: 피폭자 범주의 경계 설정과 통제에서 과학·정치·관료제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3).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호(2016a).

\_\_\_\_\_, 「종전 후 한·일 양국 귀환자의 모국 정착과정 비교 연구: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본 식민자와 피식민지민의 전후실태 비교」, 『한국민족문제연구』, 31호(2016b).

장성환, 『해방 후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정체성 찾기: 원폭피해의 발생부터 원폭2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7).

진주, 『원폭피해자 증언의 사회적 구성과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4).

허광무, 「서평: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한국의 히로시마』」, 『한일 민족문제연구』, 7호(2004).